

투데이 칼럼

북한 김정은의 고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경제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하노이 북·미 회담이 깨진 이후부터는 더욱 심각하다. 김정은은 북한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두 번이나 회담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는 광복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핵·경제 병진노선 10년 통치에도 결실이 없었다.

군이 성과라고 한다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일부 중단, 비무장지대 GP 일부 철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차단 정도다.

그러나 모두 일시적인 것이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났는데도 성과를 보면 미미하다. 주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 딱히 해주겠다는 약속은 물 건너 갔다. 더 큰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좌절감이 표현된 것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두 가지 노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경제는 지력강생, 그리고 대남·대미 관계는 정면 돌파'다.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없는 말이다.

지력강생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부터 쓴 말이다. 정면 돌파는 선전 문구에 불과하다. 김정은은 지금 무력감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인민



정복규

논설위원·통일교육원

관리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사실 남북관계는 2018년 10월을 끝으로 거의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문 대통령 방북과 평양선언에 그 나름의 큰 기대를 했다. 하지만 이후 별 변화가 없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김정은은 끊임없이 한미군사훈련 중단, 외부로부터 신무기 도입 중단, 지상·공중·해상을 비롯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개성·금강산 협력사업 재개, 평화체제를 위한 다자협상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별 진전이 없으니 뭔가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 행동으로 보이려고 압박하고 있다. 김정은은 사실상 남한이나 미국에 대해 기대를 접은 것 같다.

다만 한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한 데다 바뀔 가능성이 없으니 예측이 가능하고 다루기가 쉬울 뿐이다. 그동안 김정은이 적국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여지를 남겼다는 뜻도 된다. 실제로 북한은 도발 와중에도 미묘하게 몇 가지 여지를 남겼다.

첫째, 남측과의 연락 통신선을 끊는다면서도 국정원과 당 중앙위 간 통신선은 제외했다. 둘째, 총참모부가 도발 조치를 발효했을 때 당 중앙군사위의 추인을 받았다고 밝힌 건 처음이었다.

게다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 군사위가 곧 열릴 것이라는 예고와 함께 조치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셋째, 김정은이 군사 행동 보류 메

시지를 중앙군사위를 열지 않고 예비회의에서 내놓았다. 이 역시 전례가 없다.

도발을 잠시 멈춘 것일 뿐 최종 결정이 남아 있고, 언제든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과거에 북한은 성명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시기, 발표 형식, 단어 선택 하나하나까지 매우 신중하게 고른다.

자신들이 내놓는 메시지를 남측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읽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일 시대에는 모티터, 보도 시절, 남측 국민 반응을 봐가며 하나하나 내놓았다. 방언당이 있던 했지만 진폭이 별로 안 컸고 예측도 가능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동시다발 물아치기식이다. 변화 속도와 폭도 매우 크다. 특히 김정은은 성격이 급해 한꺼번에 다 쏟아내는 경향이 있다. 폭발적이지만 치밀함이나 정교함이 부족하다. 김정은의 통치력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자초했을 뿐이다. 이는 일단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이 말하는 '판값'은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가 아니다. 핵무기를 앞세워 자신이 주도하는 판으로 한반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사설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 평화비전의 의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시자 성탄과 기원절(基元節) 8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24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효정(孝情)의 빛 온누리의 희망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194개국에서 참여했다.

기원절(基元節)은 가정연합의 주요 기념행사 중 하나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온 인류의 이상인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문선명·한화자 총재와 김일성 주석의 방북 평화 회담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류 한 가족이 실현된 평화 세계를 목표로 전 세계 7개었던 대륙 권역을 총 97개로 개편했다. 이는 세계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비전을 잃어갈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화자 총재는 "전쟁과 갈등으로 절절된 역사 속에 환경권을 이루기 위해 61년간 촛음을 아껴 달

려와 하늘이 함께 하사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을 보내주셨다"며 평화 세계의 비전을 제시했다.

초종교 합수식은 유교,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대한천리교, 천도교, 가정연합 대표 7명이 함께 진행했다. 파라과이 전 대통령은 축하사에서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 30주년을 축하하며 남북통일을 위한 유산은 한국의 표본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통일의 큰 영감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세계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조했다.

올 기념행사는 2월 17일 성탄 기념 참배식을 시작으로 25일 신통일한국론 정립을 위한 콘퍼런스, 26~27일 효정 천보특별대행사, 28일 제5회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희망전진대회, 그리고 3월 3일 Think Tank 2020 출범식을 위해 행사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인류 한 가족의 화합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전주시의 이동형 갤러리 꽃심 운영

전주 시민과 여행객이 일상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동형 갤러리가 시내 곳곳에서 열려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예술 작가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 작품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동형 갤러리 '꽃심'을 운영하고 있다.

길이 7m, 폭 3m, 높이 2.7m의 이동형 갤러리 꽃심은 지난 1월 19일 전주역 앞 차마중길 광장을 시작으로 7~8월 휴서기를 제외한 11월까지 오거리광장 등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동형 갤러리는 사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지역 시각예술 작가 20명이 참여해 2주마다 특색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전주시는 작품의 이송과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과 소정의 운영 수당을 지급한다.

12월에는 참여 작가들과 함께 합동 전시회도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1월 12일 올해 이동형 갤러리 꽃심에 참여하는 작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작가별 전시 기간을 확정하기 위해서였다.

전주시는 전주만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다.

지붕 없는 미술관인 이동형 갤러리 꽃심을 비롯 버스킹 등 지붕 없는 공연장, 예술 있는 승강장 등 지붕 없는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동형 갤러리 '꽃심' 전시에 참여하게 된 한 작가는 "올해 열심히 작품 활동을 진행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작품을 보여 주겠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동형 갤러리에 방문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동형 갤러리 '꽃심'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문화예술도시 전주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품 활동에 매진하는 작가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어린이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경찰에서는 개화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에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 핵심구역(Care-Zone)으로 설정하여 강력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개화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로와 교통수단인 스쿨존 과 어린이 통학 버스에 대한 중점관리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관계기관, 협력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어린이(학부모) 안전교육·홍보 및 단속강화로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 근절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목적이 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67건으로 사망자 6명, 부상자 589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2건이상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전국 17개 시도, 37개 시군, 42개 지역에 이른다.

보행중 사고가 476건(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로 방과후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2~6시에 304건(54%)이 몰렸다.

전북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어린이 교통사고는 평균 455건 발생, 그 중 스쿨존에서 19.8%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등교 시간대' 차 없는 거리' 등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시행과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 교육홍보 및 단속강화,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내실화 그리고 어린이 안전중심 캠페인 추진,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직이는 빨간 신호등 '인 어린이에 대하여' 내 딸, 내 아들이라는 신념으로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하겠다.

전근수 무주경찰서 민원실장 겸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피랍 딸들 소식 기다리는 아버지



2월 28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장케베에서 화학교사이자 납치된 두 딸의 아버지인 한 남성이 아이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6일 장케베의 국립여자중학교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학생 317명이 납치돼 소식이 없는 가운데 가족들은 딸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featuring a boat illustration and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s who provide courage and hope). It includes a quote from the editor-in-chief and a list of values: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